**교제와 나눔**

**ㆍ교회당예배:** 매주일 15시 예배, 실시간으로 비대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ㆍ지난 주 방문:** 배진우-서정인/지율, 지엘

**ㆍ귀가:** 오경민, 이정윤

**ㆍ생일:** 한연재, 정크리스티안원

**ㆍ목회자휴가:** 이동훈 목사-오늘

**ㆍ담임목사:** 유럽코스타(청년유학생수련회) 상임대표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 함께 기도합시다 \*\***

1)은혜롭고 안전한 예배드리게 하소서.

2)모이기에 힘써, 배움과 교제의 기쁨 누리게 하소서.

3)코로나19를 넘어서 온전한 일상을 회복해 가게 하소서.

4)스스로를 깊이 돌아보고, 삶 속에 변화를 만들어가게 하소서.

5)공의와 평화의 주여, 우크라이나 땅에서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소서.

**◆말씀일기 일정**

일/히7:11-19 월/히7:20-28 화/히8:1-13 수/히9:1-10

목/히9:11-22 금/히9:23-28 토/히10:1-18 일/히10:19-25

**◆114 운동-**하루**(1)** 한번**(1)** 말씀일기 & 성경 **(4)**장 통독

**(성경 200독 대행진: 198독)**

**◈ 예배위원 안내 ◈**

|  |  |  |  |  |
| --- | --- | --- | --- | --- |
|  | **7월 10일** | **7월 17일** | **7월 24일** | **7월 31일** |
| **예배기도** | 민명희 | 전정혜 | 김영희 | 오경민 |
| **말씀일기** | 서민규 | 민경웅 | X | X |
| **안내위원** | 예배부 | | | |
| **헌금위원** | 김영희 김아영 | | | |

**39-28호 2022년 7월 10일**



**“서로 위로하라”**(살전4:18)

주일예배 15:00 Mutterhauskirche

유초등부 15:00 Teestube

청소년부 15:00 Teestube

청년부 성경공부 16시 Teestube

토요기도회: 07:00 각 가정

선교성경아카데미(MBA): 누구든 어디서나

**담임/ 손교훈 목사** Kyo-Hoon Sohn

☏ 02131-5249 186 HP. 0176-5779 1004

**교육/ 김요한 목사** HP. 0176-5574 1290

**교육/** **이동훈 목사** HP. 01525-2367 629

**선교협력/ 이광열 목사** HP. 0157-7388 7498

1983년 5월8일 창립 **뒤셀도르프선교교회**

**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de**

**교회주소Alte-Landstr. 179, 40489** **D****üsseldorf**

**주 일 예 배**

인도: 손교훈 목사

|  |  |  |  |  |
| --- | --- | --- | --- | --- |
| ※입례송/Eingangslied ……………. 왕이신 나의 하나님 …………………  ※예배부름/Eingangsgebet ………………………………...........………………………………………………............. | 다함께  인도자 | | |  |
| ※찬송/Gemeindelied ……….......................….…… 3장 ……................................... | | 다 함 께 |
| ※신앙고백/Glaubensbekenntnis ………………………………………….................. | | 다함께 |
| 성시교독/Wechselwort …………………. 교독문 48번 ……………............... | | 다함께 |
| 찬송/Gemeindelied …………………..…………. 303장 ……….………………..…… | | 다함께 |
| 기도/Gebet …….................…………...................................................…………..............  말씀일기/Bibeltagebuch ……………………………………………………………………...  찬양/Chor ……………….................... 왕이신 나의 하나님 …..………… | | 민명희 집사  서민규 집사  서민규 집사 |
| 성경봉독/Text zur Predigt ……….…. 창세기14:1-24 …………………….… | | 인도자 |
| .설교/Predigt ..…...…................................. **다 찾아왔더라** ……………….......... | | 손교훈 목사 |
| 찬송/Gemeindelied .................................... 321장 ……………………….….…  봉헌/Kollekte……….......................................................................................................... | | 다 함 께  다 함 께 |
| 교제/Bekanntmachung………………………………………………………………................ | | 다함께 |
| ※주기도송/Vaterunser…………………………………………………………………………… | | 다함께 |
| ※축도/Segen ………………………….……………………………………………...................... | | 손교훈 목사 |

**※ 표는 일어섭니다.**

**\*\*교회 구좌\*\***

Ev. Presbyterianische Kirchengemeinde e.V.

Bank: Stadtsparkasse Düsseldorf

IBAN: DE61 3005 0110 1008 4019 01

**▶ 손교훈 목사의 말씀일기 히5장 ‘이해할 수 있을까’ ◀**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중의 대제사장으로 설명한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한들 얼마나 감동이 될까?

구약성경이 멜기세덱에 대해 일회적으로 언급함으로 인해, 오늘날의 한국 그리스도인은 히브리서 1차 독자들이 가졌을 짜릿함을 갖지 못한다. 게다가 대제사장이 갖는 소중한 의미도 사실상 잘 느끼지 못할 테고, 설상가상 현직 사제들에 관해 별반 좋은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수께서 최고의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감동적일 수 있을까?

아무래도 대제사장에 대해 저자가 묘사하는 것들을 다 짚어 봐야만 할 것 같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택하고 부르신 자요(1, 4, 5), 사람을 위한 자요(1), 자기도 연약하여 다른 약한 자를 용납할 수 있는 자요(2), 백성을 위해 속죄제를 드리되, 또한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 해야 하는 자다(3).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이처럼 대제사장이 갖춰야 할 조건을 모두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아버지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7)리셨다.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8), 온전하게 되시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9).

최고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는 것도 쉽지 않지만, 난 한 사람의 사제로서 주님의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얼마나 알고 있나 싶어 한 없이 부끄러워진다. “하나님이신 그 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펑펑 쏟으신 사랑의 눈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라고 성도들을 향해서 힘을 주어 말한 만큼, “나는 그 사랑에 감격해 살아갑니다”라고 선포하는 만큼, 부끄러움이 더 커지는 것은 왜일까? 난 아직도 많이 멀었나 보다.